

발행처: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전화 02-795-1591 | 팩스 02-795-1592 | <http://www.kimee.or.kr>

의평원 소식

2008년 인증평가 인증서 전달식 및 2009년 인증평가 설명회 개최



의학교육인증단(단장 이윤성)은 2009년 2월 10일(화)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08년 인증평가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2008년도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4개의 평가대학(경희의대, 아주의대, 연세의대, 영남의대)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인증서 전달식에 이어 진행된 '2009년 인증평가 설명회 및 자체 평가위원 워크숍'에는 2009년도 평가 대학의 의학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금년도 인증평가 계획과 일정 및 평가규정과 기준에 대한

설명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도 인증평가 참여대학은 기톨릭의대, 경상의대, 동아의대, 부산의대, 순천향의대, 원광의대, 을지의

대, 이화의대, 인제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중앙의대, 한림의대, 한양의대 등 총 14개 대학이며, 향후 평가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서	내 용	일 자
1	평가대상 대학 결정 및 일정 등 통보	1월
2	평가대상 대학 초청 인증평가 설명회	2월 10일
3	대학별 자체평가연구구수행	2월 10일~8월 31일
4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접수	8월 31일
5	서면·현지방문평가를 위한 평가단워크숍	9월 초
6	대학별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9월~10월
7	대학별 현지방문평가	9월 말~10월 초
8	대학별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 검토 및 인쇄	11월
9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통보	12월

2008년 정기 감사 실시

정관 제19조에 의거 ‘2008년도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정기 감사’가 2009년 1월 20일(화)에 실시되었습니다. 이성 낙(前 가천의대 총장), 백상호(前 국시원장)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의학교육 관련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기본의학교육 평가사업과 발전위원회 사업의 활성화, 예산·인력·공간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제출된 감사보고서는 제7차 정기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제7차 정기 이사회 개최

제7차 정기 이사회가 재직이사 20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덕 이사장(서울의대)의 주재로 2009년 2월 3일(화) 밀레니엄 힐튼호텔 토파즈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8년도 회무사항을 보고하고, 2008년 결산(안), 200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사회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소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본원 정관 제10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의학교육평가에서 컴퓨터 활용검사 이용을 위한 워크숍 개최



기본의학교육평가단(단장 김형규)에서는 의학교육평가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컴퓨터 활용 검사 이용을 위한 워크숍」을 2월 7일(토) 고려의대 의과학연구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컴퓨터 활용검사인 CBT/CAT를 의학교육평가에 적용하는 교육과 실습을 목적으로 CAT 소개, 문항모수의 추정 및 학생학습평가와 문항이론반응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총 17개교 24명의 의학교육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인증평가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개최



의학교육인증단(단장 이윤성)에서는 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증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1월 1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의대·의전원 및 의학교육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증평가에 대한 국내 인증평가제도와 인증제도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소개에 이어 인증평가기준의 5개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분임토의를 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였습니다.

의대/의전원 입학전형을 위한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안내

기본의학교육평가단(단장 김형규)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의대·의전원의 준비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의대/의전원 입학전형을 위한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4월 25일에 개최되는『입학사정관 워크숍』은 실제 입시상황에서 입학사정관 역할수행시 요구역량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되며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대/의전원 입학전형을 위한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한 워크숍

□ 일 시 : 2009년 4월 25일(토) 08:00~18:30

□ 장 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4강의실

□ 일정

사회: 이병두(기본의학교육평가단 간사)

08:00 – 08:20 등록

08:20 – 08:25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격려사 – 이무상 원장

08:25 – 08:30 기본의학교육평가단장 인사말 – 김형규(의대)

08:30 – 08:50 입학사정관이란?(강의) – 이병두(인제의대)

08:50 – 09:50 선발: 선발의 의사결정, 선발담당자 역할, 선발담당자의 요구역량(강의)
– 오동근(ORP 연구소)

09:50 – 10:00 휴식

10:00 – 11:00 역량: 역량의 개념, 역량의 구성 요소, 역량의 판단기준(강의)

11:00 – 12:00 평가 방법: 자기소개서 활용, 검사의 특징과 활용, 면접 유형과 특징,
행동사건면접(behavior event interview)(강의)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5:30 면접 스킬: 면접 진행, 질문, 평가, 평가자 오류
(강의, 자기진단, 동영상 시청)

15:30 – 15:40 휴식

15:40 – 18:10 면접 실습: 실습 과 관찰, 피드백(실습)

18:10 – 18:30 전체 토의 및 맺음말 – 오동근, 이병두

의대/의전원 입학전형을 위한 선발면접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안내

기본의학교육평가단에서는 4월 25일의『입학사정관 워크숍』의 심화과정으로 5월 29일 및 30일 양일간에 걸쳐『의대/의전원 입학전형을 위한 선발면접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의대/의전원의 선발면접전문가로서 학생면접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크숍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의학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의대/의전원 입학전형을 위한 선발면접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 일 시 : 2009년 5월 29일~ 5월 30일 09:00

□ 장 소 : 서울대 암연구소

□ 일정

사회: 이병두(기본의학교육평가단 간사)

5월 29일(금)

09:00 ~ 09:40 등록

09:40 ~ 09:45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격려사 – 이무상 원장

09:45 ~ 09:50 기본의학교육평가단장 인사말 – 김형규(고려의대)

09:50 ~ 10:00 워크숍 안내 – 이병두(인제의대)

10:00 ~ 11:00 팀빌딩 – 오동근(ORP 연구소)

11:00 ~ 12:00 선발 면접: 인재 층원과 선발기법, 면접 의의와 중요성,
면접 유형별 특징(강의)

– 오동근(ORP 연구소)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4:00 선발 면접: 선발과 공정성, 면접 기법의 신뢰도와 타당도(강의)

14:00 ~ 18:00 역량과 평가 기준(강의 및 실습)

18:00 ~ 18:20 질의 응답 및 맺음말

5월 30일(토)

09:00 ~ 12:00 면접 방법의 설계(강의)

12:00 ~ 13:00 점심 식사

13:00 ~ 14:00 면접 방법의 설계(실습)

14:00 ~ 17:00 평가스킬(강의 및 실습)

17:00 ~ 18:00 종합토의 및 정리

서면-현지방문평가단 대상자 및 희망자 인증평가 워크숍 개최 안내

의학교육학회는 임상실습 교육을 주제로 6월 10(수)일부터 13일(토)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제 25차 의학교육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합동학술대회로 개최되는 이번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의평원은 6월 11일(목) 오전 9시 PARALLEL SESSION으로 ‘서면-현지방문평가단 대상자 및 희망자 인증평가워크숍’을 개최하오니, 금년도 서면-현지방문평가단 대상자 및 인증평가에 관심 있는 의학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교육관련 소식

청년의사 2009/1/12

50대 대학교수가 ‘의대 질관리’ 가장 원해 응답자 96%는 “부실의대 정원 축소해야” … 평가 결과 공개는 ‘신중’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 kss@doctooc.co.kr

최근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 1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의대의 출현’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증기가 우려되며, 부실한 의학 교육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목포대학교가 의대 신설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의료기반 미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여전하다. 과거 신생의대들도 설립 때마다 같은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제 지역에서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항상 언급되는 것이 신설의대들의 ‘교육 여건’이다.

의학이라는 첨단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을 선별하기 때문에 ‘국가고시 준비학원’ 등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간담회에서는 “국가면허의 경우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과학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주 의심만만에서는 이처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과대학 질 관리’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을 물었다. 우선 전체적인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의사들 대부분은 ‘의대를 평기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폐널티를 줘야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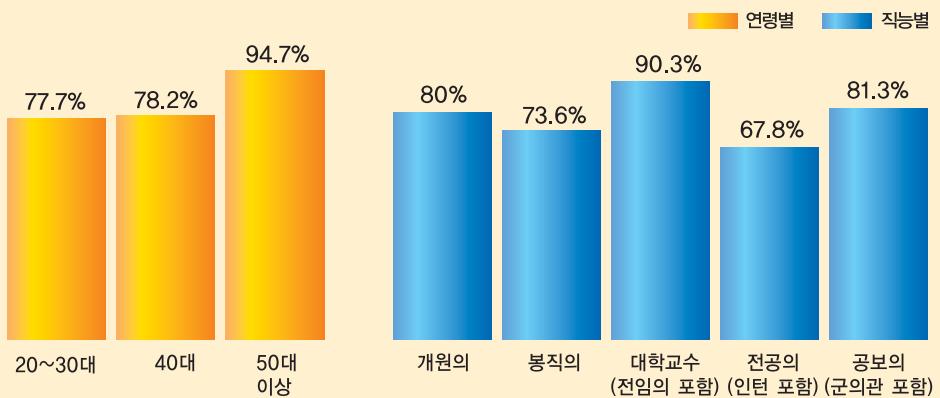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자는 의사면허시험(국시)을 볼 수 없게 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 의사들(79.8%)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응답자 중 94.7%가 찬성의견을 밝혀 20~30대(77.7%)와 40대(78.2%)에 비해 20%p 가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직능별로 살펴보면 대학교수(전임의 포함)의 찬성 응답률(90.3%)이 타직능(개원의 80%, 봉직의 73.6%, 공보의(군의관 포함) 81.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의(인턴 포함)의 경우 ‘국시 응시자격 제한에 찬성한 비율이 67.3%로 전직능과 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인증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인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세부항목 공개(32.9%), ‘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23.1%), ‘대중에 비공개’(9.8%)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이 항목에서도 타 연령과 다른 응답을 보였는데 20~30대와 40대가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응답률을 보인 반면 50대 이상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15.7%로 평균(32.9%)에 미치지 못했으며 ‘인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공개한다’는 응답률은 57.8%로 평

균(34.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도 5.2%로 평균(9.8%)을 밑돌았다. 직능별로 살펴보면 봉직의들은 ‘모든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전공의(인턴 포함)들은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야 한다’는 의견이 39.2%로 가장 많았고, 개원의들은 ‘인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공개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았다. 대학교수(전임의 포함)들은 인증 수준 이하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로 가장 높았지만,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 직능 중에서 가장 높은 12.9%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평기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대에 한해 입학정원을 일정 비율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96%)으로 높았다. 전연령과 직능을 살펴봐도 모든 연령과 직능에서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90%를 웃돌았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98.1%), 직능별로는 봉직의(100%)의 응답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패널은 173명으로 개원의 20%, 봉직의 11%, 대학교수 · 전임의 17%, 전공의(인턴 포함) 16%, 공보의 · 군의관 34%, 기타 1%였다. 신뢰도 95%에서 오차범위는 ±3.74%였다.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의 시험 제한에 ‘찬성’하는 의사 비율



평가 결과를 ‘세부항목’ 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사 비율



‘평가 결과를 대중에 공개할 필요없다’는 의사 비율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자의 면허시험 기회 박탈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얼마 전 열린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간담회에서 “국가면허의 경우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교교부 등 교육당국과 관련 부처 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합니다.

이 간담회에서 의평원은 평가 인증된 의대 졸업자에 한해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의대를 신설하려면 반드시 예비평가를 거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의심만만에서는 이번 논의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Q1.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자는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한다 : 79.8%(138명)
- 2) 반대한다 : 16.8%(29명)
- 3) 모르겠다 : 3.5%(6명)

Q2.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모든 세부항목까지 공개한다 : 32.9%(57명)
- 2)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정도가 적당하다 : 23.1%(40명)
- 3) 인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공개한다 : 34.1%(59명)
- 4)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9.8%(17명)

Q3. 평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대에 한 해 입학정원을 일정비율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한다 : 96% (166명)
- 2) 반대한다 : 4% (7명)
- 3) 모르겠다 : 0% (0명)

대학평가제와 관련, 평가 · 인증 · 인정의 개념상 차이점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대학평가제도는 ‘인정’과 ‘인증’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원에서도 앞으로 정관 및 규정 등에 사용되는 ‘인정평가’와 관련된 용어를 ‘인증’으로 용어 변경하여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 평가(evaluation) : 평가기구가 대학운영의 전반 또는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 포함)의 운영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의미
- ◇ 인증(creditation) : 평가기구가 대학운영의 전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 인정(recognition) : 정부가 평가·인증기관의 기본 적격성, 행·재정적 역량,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간담회(2008. 12. 18) 관련 사항 Q&A 中-

의평원 연구 활동

교과부 지원 '의학분야 평가인정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의학분야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전문인력 양성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분야별 평가 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의학분야 평가인정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의학분야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전문인력 양성 사업'(지원사업비:9,000만원, 사업기간:2008.11.1~2009.1.31)의 연구를 종료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결과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결과보고서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목록	주요내용
1. 국제수준의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	평가기준
2. 국제수준의 인정평가 규정	평가규정 조문작업, 서면현지방문평가가이드
3. 의학분야 평가기준, 규정 영문화	영문평가기준, 홈페이지개편 건 등
4. 국제기구 가입요건 분석 및 가입 추진	국제기구(ASPA 및 INQAA) 현황 및 INQAA 가입신청서
5. 평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행	평가워크샵 프로그램

2008년도 정책연구과제 최종연구보고서 접수

2008년도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되고 각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연구에 힘쓰신 연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 연구과제 목록을 안내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전문은 의평원 홈페이지(www.kim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번호	제 목
2008-RE-001	의과대학 신입생 및 졸업생 인식 조사
2008-RE-002	대학원 분야 평가인정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08-RE-003	전공의 수련 기관 인증제도 국제 비교 연구
2008-RE-004	연수 교육 교육기관의 교과목 프로그램 적정성에 대한 분석
2008-RE-005	전문의양성을 위한 졸업후교육 공통교육과정개발
2008-RE-006	외국수련자 인증 시스템 연구

본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http://www.kimee.or.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소식 제8호

· 발행처: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 발행인: 이무상 · 편집: 대외협력위원회 · 인쇄: (재)한국의학원

*이 소식지는 (재)한국의학원의 지원에 의해 인쇄 되었습니다.